

# 간호학과 신입생의 진로정체감, 전공만족도 및 대학생활적응 상관관계

조인영<sup>1</sup>  
<sup>1</sup>동강대학교 간호학과

## The Relationship of Career Identity, Major Satisfaction and College Adaptation of Nursing Freshmen

In-Young Cho<sup>1</sup>

<sup>1</sup>Department of Nursing, Dong Kang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간호학과 신입생의 진로정체감, 전공만족도 및 대학생활적응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013년 10월 15일부터 11월 4일까지 K시에 위치한 4년제 간호학과 신입생 20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 20.0을 이용하여 서술적 통계,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와 다중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간호학과 신입생의 진로정체감과 전공만족도( $r=.352, p<.001$ ), 진로정체감과 대학생활적응( $r=.256, p<.01$ ), 전공만족도와 대학생활적응( $r=.219, p<.01$ )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로 나타났고, 진로정체감과 전공만족도는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회귀모형의 45.0%를 설명하였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간호학과 신입생의 대학생활적응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를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scribe the relationship of Career Identity, Major Satisfaction and College Adaptation of nursing freshmen. The participants were 202 nursing freshmen in K city from October 15 to November 4. The data was collected by questionnaires and was analyzed using SPSS 20.0. There was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among Career Identity, Major Satisfaction and College Adaptation of nursing freshmen. It was found that the effect of Career Identity and Major Satisfaction on College Adaptation was 45.0%. The results of this study provided a foundation to recognize importance of College Adaptation and to develop intervention program to improve College Adaptation of nursing freshmen.

**Key Words** : Career Identity, College Adaptation, Major Satisfaction, Nursing Freshmen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간호사는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중추적인 건강전문직으로서 간호대상자에게 돌봄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이러한 역할에 대비하기 위해 신입생때부터 대학생활에 잘 적응하여 필요한 역할과 전문 능력을 함양해야 한다[1].

대학생활적응은 현재의 발달 뿐 아니라 이후 대인관계와 취업에 이르는 여러 요인에 영향을 미치므로 건강

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밑바탕이라 할 수 있다[2]. 그러나 본인의 흥미나 가치보다 성적이나 주위의 기대에 맞추어 전공을 선택한 경우[1], 전공과 자신의 특성 사이의 불일치를 경험하거나,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지고 학습에 대한 흥미를 상실할 수 있다[3]. 또한 이는 대학생활에 대한 부적응으로 이어지고 대학 졸업 후의 삶까지 영향을 미쳐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전공만족은 개인이 설정한 진로나 직업에 대한 기준과 비교하여 현재 자신의 전공을 평가하는 판단과정으로

<sup>\*</sup>Corresponding Author : In-Young Cho(Dong Kang Univ.)

Tel: +82-10-4696-5348 email: [ciy1024@dkc.ac.kr](mailto:ciy1024@dkc.ac.kr)

Received January 6, 2014

Revised (1st February 3, 2014, 2nd February 5, 2014)

Accepted May 8, 2014

서[4], 간호대학생은 대학생활 동안 간호학 및 전공 교과목, 대인관계 및 간호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를 통하여 전공만족도를 판단하게 된다[5]. 하지만 간호대학생들은 다른 학과 학생보다 다양한 전공과목으로 인해, 교육과정 에 여유로움 없이 과중한 학습을 해야하고, 임상실습을 겸하며 짧은 시간 내에 정해진 지식을 습득해야하는 부담을 가지고 있다[6]. 또한 1학년 때부터 해부학, 생리학, 미생물학 등의 전공 기초과목을 배우게 되고, 암기해야 할 내용이 방대하며[7],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학문으로 인해 발생하는 긴장감은 많은 스트레스를 야기시키고[8], 이는 대학생활적응에 대한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전공만족도는 졸업 후 진로결정과도 관련되며[4], 간호학과 신입생의 전공만족은 추후 간호직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과도 관련되어, 간호사의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신념과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9].

대학 진학시 전공선택은 향후 진로와 관련된 중대한 결정사항이다[10]. 하지만 간호대학생은 입학 때부터 전공이 확실히 정해져 있어 대학 진학과 동시에 이미 진로의 방향이 결정된다고 간주되기 때문에[1], 스스로 진로와 전공을 탐색할 기회가 부족하다[11]. 또한 대학의 학과에서도 폭넓은 인생진로를 지도하기보다는, 해당 기관의 간호사 채용 정보를 전달해주는 수준의 지도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12], 간호대학생은 자신의 진로 선택에 대한 깊이 있는 고찰이 부족한 상태에서 졸업 후 진로를 선택하기 쉽다[13].

하지만 자기확신이 포함된 진로정체감은 원활한 대학 생활을 영위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졸업 후 직업 선택 및 유지에도 영향을 미치므로[14], 신입생때부터 명확하고 안정적인 진로정체감을 발달시키는 것은 대학 신입생의 주요 과제라고 할 수 있다[15].

대학 신입생 기간은 대학생활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시기지만[16], 간호학과 신입생의 대학생활적응을 다룬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며, 기존의 연구는 자아 존중감[17], 자기 효능감[18], 학업스트레스[8] 등 신입생 개인내부 요인과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를 논하는 연구가 많았다. 하지만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며, 스트레스의 주요 원인이라 할 수 있는[19], 학업과 관련된 진로정체감과 전공만족도 및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를 다룬 연구는 아직 없다. 더욱이 간호대학생은 졸업 후에도 상대적으로 취업률이 높고 입학시 직

업적 선택이 대부분 이루어지기 때문에, 진로정체감과 전공에 대해 많이 간파해 온 것이 사실이다[11].

타 대학생에 비해 간호학과 신입생의 학업관련 높은 스트레스를 고려할 때[2], 이들의 전공만족도, 진로정체감을 측정하여 대학생활적응에 대한 이해를 돕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대학생활에 부적응을 보이는 학생들을 신입생 때부터 조기 발견하여 적절한 방안을 제공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의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학과 신입생의 진로정체감, 전공만족도 및 대학생활적응의 상관관계를 파악함으로써, 간호학과 신입생의 성공적인 대학생활적응 방안 마련을 위한 진로지도, 학업적응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 1.2 연구목적

본 연구는 간호학과 신입생의 진로정체감, 전공만족도 및 대학생활적응의 상관관계와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 요인을 파악하여 성공적인 대학생활적응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진로정체감, 전공만족도 및 대학생활적응을 파악한다.
-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정체감, 전공만족도 및 대학생활적응을 파악한다.
- 3) 대상자의 진로정체감, 전공만족도, 대학생활 적응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4) 대상자의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 2. 연구방법

###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학과 신입생의 진로정체감, 전공만족도 및 대학생활적응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 2.2 연구대상

본 연구 대상은 K시에 위치한 4년제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1학년 신입생으로 본 연구목적 및 방법을 이해하고

연구 자료수집에 참여를 자발적으로 서면 동의한 202명이다.

연구 대상자 수는 표본수 산출프로그램 G Power 3.10 프로그램[20]을 이용하여 유의수준 .05, 검정력 .95, 효과 크기 .30으로 계산하였을 때 양측검정에서 표본크기는 134명으로 산출되어, 본 연구자수 202명은 필요한 표본수를 충족하였다.

## 2.3 연구도구

### 2.3.1 진로정체감

진로정체감이란 자신의 직업과 관련된 자아정체감으로서, 자신의 목표, 흥미, 그리고 재능에 대해 개인이 가지고 있는 명확하고 안정된 상을 의미한다[21].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진로정체감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Holland, Diger와 Power(1980)[15]가 개발한 진로정체감 도구를 Kim(1997)[22]이 한국 상황에 맞게 변안하고, Kwon(2002)[23]이 간호 대학생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채점을 역환산하였으며, 총 14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은 4점 리커트 척도의 도구로 각 항목에 ‘매우 그렇다(1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4점)’까지 표시하도록 되어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정체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Kim(1997)[22]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89이고, Kwon(2002)[23]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88이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89이었다.

### 2.3.2 전공만족도

전공만족도란 개인이 설정한 진로나 직업에 대한 기준과 비교하여 현재 자신이 소속한 전공에 대해 만족하는 정도를 의미한다[4].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전공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Ha(2000)[4]가 작성한 34개 문항의 학과만족 도구 중 Lee(2004)[24]가 전공만족 관련 18문항을 추출하여 사용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인식만족, 일반만족, 교과만족, 교수-학생 간 관계 만족의 4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의 도구로 각 항목에 ‘매우 그렇다. (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1점)’까지 표시하도록 되어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전공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Ha(2000)[4]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92이고, Lee(2004)[24]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90이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90이었다.

### 2.3.3 대학생활적응

대학생활적응은 학생들이 대학 환경 속에서 생활하면서 학업, 대인관계, 정서적 측면에서 대학생활의 요구에 대처하는 적절한 반응을 의미한다[25].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대학생활적응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Baker와 Siryk(1984)[25]이 개발한 대학생활적응(Student Adjustment to College Questionnaire: SACQ)도구를 Hyun(1992)[26]이 변안하고, Kim(2004)[27]이 수정 보완한 67문항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학업적응, 개인적-정서적 적응, 대학환경적응, 사회적응의 4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6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 중 사회적응 영역의 8문항, 학업적응 영역의 1개 문항은 중복으로 포함되었다. 본 도구는 5점 리커트 척도의 도구로 각 항목에 ‘매우 그렇다(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1점)’까지 표시하도록 되어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이 높음을 의미한다. Baker와 Siryk(1984)[25]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94이고, Kim(2004)[27]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90이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88이었다.

## 2.4 자료수집 방법 및 윤리적 고려

연구 대상자의 윤리적 측면을 보호하기 위해 연구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연구 참여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설문지 작성 중 언제라도 연구의 참여를 포기할 수 있음을 설명한 후, 동의서에 자발적으로 서명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13년 10월 15일부터 11월 4일까지 이루어졌으며, 총 배부된 설문지는 207부였고, 이중 미 응답했거나 불확실한 설문지 5부(2.5%)를 제외한 202부를 분석하였다.

## 2.5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0.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진로정체감, 전공만족도 및 대학생활적응은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를 이용하였고,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내적일관성 검사인 Cronbach’s alpha 테스트를 이용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정체감, 전공만족도 및 대학생활적응은 t-test, ANOVA를 사용하였고, 사후검정은 Scheffè를 이용하였다. 대상자의 진로정체감, 전공만족도 및 대학생활적응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고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사용하였다.

### 3. 연구결과

####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총 202명의 대상자 중 남자는 25명(12.2%), 여자는 177명(87.8%)이었으며, 대상자의 대부분이 189명(93.6%)으로 미혼의 상태였다, 진학 동기는 ‘본인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서가 97명(48.1%)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가족의 권유’ 47명(23.3%), ‘성적에 의해서’ 37명(18.5%)순으로 나타났다. 대학생활 중 어려운 점은 ‘학과 수업’이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127명(62.8%)으로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졸업 후 취업희망분야는 국내 병원이 146명(72.4%), 그 다음으로 해외병원 30명(14.7%), 공무원 13명(6.4%)순으로 나타났다[Table 1].

[Table 1]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202)		
Characteristics	Category	N(%)
Gender	Male	25(12.2)
	Female	177(87.8)
Marriage	Marriage	13(6.4)
	Single	189(93.6)
Motivation for Entering College	Own choice	97(48.1)
	Family recommendation	47(23.3)
	According to grade	37(18.5)
	Teacher, friend recommendation	21(10.1)
Difficulty in College life	Lecture	127(62.8)
	People's attention	48(23.7)
	Relation among Friends	27(13.5)
The Field Desired to Work	Domestic hospital	146(72.4)
	Overseas hospital	30(14.7)
	Public official	13(6.4)
	School nurse	9(4.5)
	Worksite nurse	4(1.9)

#### 3.2 대상자의 진로정체감, 전공만족도 및 대학생활적응

대상자의 진로정체감은 4점 척도에 평균 2.77±0.68이었다. 대상자의 전공만족도는 5점 척도에 3.61±0.49점이었으며, 하위영역 중 가장 높게 나타난 영역은 ‘인식만족(4.03±0.84점)’이었다. 그 다음으로 ‘일반만족(3.60±0.92점)’, ‘교과만족(3.19±0.82점)’, ‘교수-학생 간 관계만족

(3.14±0.87점)’순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대학생활적응은 5점 척도에 평균 3.06±0.29점이었으며, 하위영역 중 가장 높게 나타난 영역은 ‘학업적응(3.15±1.05점)’이었다. 그 다음으로 ‘개인-정서적응(3.10±0.31점)’, ‘대학환경적응(3.06±0.45점)’, ‘사회적응(2.92±0.65점)’순으로 나타났다[Table 2].

[Table 2] Career Identity, Major Satisfaction and College Adaptation (N=202)

Category	Mean±SD
Total Career Identity	2.77±0.68
Total Major Satisfaction	3.61±0.49
Acknowledge Satisfaction	4.03±0.84
General Satisfaction	3.60±0.92
Curriculum Satisfaction	3.19±0.82
Student-Faculty relation Satisfaction	3.14±0.87
Total College Adaptation	3.06±0.29
Academic Adaptation	3.15±1.05
Personal-Emotional Adaptation	3.10±0.31
College Environment Adaptation	3.06±0.45
Social Adaptation	2.92±0.65

####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상자의 진로

##### 정체감, 전공만족도 및 대학생활적응

대상자의 진로정체감은 진학동기(F=10.039, p=.000), 대학생활 중 어려운점(F=4.329, p=.006), 취업희망분야(F=2.453, p=.049)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유의한 요인에 대해 Scheffè 검정을 한 결과, 본인의 선택에 의해 진학한 대상자가 성적에 의해 입학한 대상자의 진로정체감보다 높게 나타났고, 대학생활 중 학과강의로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의 진로정체감이 주위의 시선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보다 더 낮게 나타났다. 대상자의 전공만족도는 진학동기(F=4.507, p=.005)에 따라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적응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가 없었다[Table 3].

#### 3.4 대상자의 진로정체감, 전공만족도 및 대학생활적응 상관관계

대상자의 진로정체감과 전공만족도(r=.352, p<.001), 진로정체감과 대학생활적응(r=.256, p<.01), 전공만족도와 대학생활적응(r=.219, p<.01) 모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Table 4].

[Table 3] Level of Career Identity, Major Satisfaction and College Adaptation according to Subject's Characteristics (N=202)

Variable	Category	Career Identity		Major Satisfaction		College Adaptation	
		Mean±SD	t or F (p)	Mean±SD	t or F (p)	Mean±SD	t or F (p)
Gender	Male	2.86± 0.53	0.543	3.68± 0.54	0.693	3.16± 0.34	1.670
	Female	2.77± 0.69	(.132)	3.60± 0.49	(.332)	3.04± 0.29	(.102)
Marriage	Marriage	2.40± 0.62	-1.831	4.09± 0.60	3.279	3.09± 0.28	.402
	Single	2.81± 0.67	(.835)	3.58± 0.47	(.190)	3.05± 0.30	(.881)
Motivation for Entering College	*Own choice <sup>a</sup>	3.26± 0.53		3.72± 0.46		3.03± 0.30	
	By grade <sup>b</sup>	2.56± 0.62	10.039	3.45± 0.51	4.507	3.04± 0.26	1.033
	Family recommendation <sup>c</sup>	3.13± 0.68	(.000)	3.47± 0.48	(.005)	3.13± 0.26	(.380)
	Teacher, Friend recommendation <sup>d</sup>	3.07± 0.51	(a>b)	3.34± 0.57	(a>d)	3.07± 0.33	
Difficulty in College life	Relation among Friends <sup>a</sup>	2.87± 0.62	4.329	3.65± 0.59	1.254	3.09± 0.26	0.359
	Lecture <sup>b</sup>	2.79± 0.66	(.006)	3.60± 0.49	(.292)	3.06± 0.28	(.782)
	People's attention <sup>c</sup>	3.33± 0.65	(b<c)	3.33± 0.50		2.97± 0.45	
The Field Desired to Work	Domestic hospital	2.70± 0.63		3.65± 0.47		3.1± 0.28	
	Oversea's hospital	3.06± 0.80	2.453	3.43± 0.51	1.232	3.1± 0.36	1.468
	Public official	2.74± 0.53	(.049)	3.62± 0.58	(.300)	3.0± 0.33	(.215)
	School nurse	3.23± 0.53		3.57± 0.54		3.0± 0.16	
	Worksite nurse	2.52± 1.24		3.37± 0.66		3.4± 0.37	

Post hoc: Scheffè test

[Table 4] The Relationship among Career Identity, Major Satisfaction, College Adaptation (N=202)

	Career Identity r(p)	Major Satisfaction r(p)	College Adaptation r(p)
Career Identity	1		
Major Satisfaction	.352 (<.001)	1	
College Adaptation	.256 (<.01)	.219 (<.01)	1

### 3.5 대상자의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회귀분석 실시결과, 진로정체감( $\beta=.58, p<.001$ ), 전공만족도( $\beta=.36, p<.01$ ) 모두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 회귀모형에 대한 총 설명력은 45.0%이었다[Table 5].

[Table 5] Influencing Factors on College Adaptation (N=202)

Variable	B	$\beta$	t	Adj R <sup>2</sup>	F(p)
Constant	3.07		16.94		
Career Identity	.41	.58	9.69	.450	64.42 (<.001)
Major satisfaction	.26	.36	5.98		

## 4. 고찰

본 연구는 간호학과 신입생의 진로정체감, 전공만족도 및 대학생활적응의 상관관계를 알아봄으로서 신입생의 효과적인 대학생활적응을 돕기 위한 진로지도 및 학업적응프로그램 개발의 기초를 제공하고자 시행되었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진로정체감은 평균 2.77±0.68점이었으며, 이는 간호대학생 23학년을 대상으로 한 Kwon과 Choi(2010)[28]의 연구에서 2.27점, 3학년 대상의 Choi(2009)[11]의 연구에서 나타난 2.27±0.43점보다 높은 수준이다. Kim(2012)[21]이 학년이 높아질수록 진로정체감이 낮아짐을 보고한 연구결과가 이를 지지하며 간호대

학생들은 타과 학생에 비하여 취업이 대부분 정해진 상태이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진로에 대한 고찰을 할 기회가 부족한데서[11] 나온 결과로 생각된다.

한편 타 학과 4년제 대학생의 진로정체감을 조사한 Lee(2006)[29]의 연구에서는 저학년보다 고학년의 진로정체감이 더 높게 나타나 상이한 결과를 보였고, 이에 전공별 진로정체감의 차이와 학년별 진로정체감의 변화를 관찰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대상자의 진로정체감은 본인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 진학한 대상자가 성적에 의해 진학한 대상자의 진로정체감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본인의 적성과 선택에 따라 진학한 대상자의 진로정체감이 높게 나타났고, 직업선택에서도 높은 자기 확신을 갖게 됨을 보고한 Kim(2012)[21], Lee와 Kwon(1996)[30]의 연구가 이를 지지하며, 타인의 권유가 아니라 본인의 선택에 의해 진학한 학생의 진로에 대한 인식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학 역시 학생선발과정에서 학업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진로에 대한 적성, 흥미 등을 고려한 다양한 선발 방법을 모색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21].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남학생(2.86±0.53점)이 여학생(2.77±0.69점)보다 높은 진로정체감을 나타냈고, Cho와 Lee(2006)[12], Kim(2012)[21]과 미국 3개 대학의 간호학과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Leehu와 Devon(2005)[31]의 연구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보여, 남성은 직업선택에 있어 여학생보다 진로에 대한 목적성이 뚜렷하고 적성에 따라 진학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전공만족도는 3.61±0.49점으로 나타났고, 이는 간호대학생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한 Kim(2011)[32]연구의 3.91±0.50점 보다 낮은 결과이다. 이는 신입생은 전공에 대해서 아직 많이 접해보지 않은 상태이고, 전공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데서 나온 결과로 생각되며, 이에 신입생 때부터 전공에 대한 인식을 높여 줄 수 있는 학습법 또는 전공탐색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남자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Lee(2011)[33]의 연구에서 3.77±0.54점으로 나타나 본 연구보다 높은 결과를 보였는데, 본 연구는 대상자 중 178명(87.8%)이 여학생으로서, 간호학과에 진학한 남학생은 전공에 대한 보다 뚜렷한 목표와 인식을 가지고 진학하기 때문에[33] 나타난 결과로 사료된다.

전공만족도 중 가장 높았던 하위영역은 학과 인지도

에 대한 만족을 나타내는 '인식만족'이었고, 가장 낮은 하위영역은 '교수-학생 간 관계만족'이었다. Kim(2011)[32], Lee(2011)[33], Moon과 Lee(2010)[34]의 연구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간호대학생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직업으로서 간호사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는 만족하지만[34], 교수-학생간의 관계만족도는 낮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신입생 때부터 교수와 신입생간의 친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상담프로그램 및 1:1 멘토링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신입생의 대학생활적응을 높이기 위한 지도교수제를 강화하고[17], 학습법이 아닌 로지도 등을 통한 신입생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지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34]. 또한 Kim(2003)[35]의 연구에서 교수와 학생의 상호작용이 높을수록 대학생활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처럼 교수와 학생의 상호작용과 교류를 증진시킴으로서 전공만족도를 높이고 더 나아가 대학생활적응 역시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대상자의 대학생활적응은 3.06±0.29점으로 보통 수준이었으며, 이는 3년제 간호학과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Park 등(2009)[36]의 연구에서 3.0점, Jung과 Chung(2012)[17]의 연구에서 2.9±0.37점으로 나타난 결과와 유사한 수준이다. 하지만 본 연구는 4년제 간호학과 신입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로, 학제에 따른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학제 간 차이에 따른 신입생의 대학생활적응을 알아보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전 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Park(2009)[37]의 연구에서 9점 척도 5.12±0.83점, 의약계열 대학생 대상의 Sim(2013)[38]의 연구에서 5점 척도 3.02점으로 나타나, 본 연구보다 약간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간호대학생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다양한 교과과정과 임상실습 수행에 대한 스트레스로 대학생활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에 입학 시 부터 신입생들이 학과생활에 만족감을 느끼고 대학생활의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전략을 모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행이 요구될 것으로 사료된다[17].

대학생활적응의 하위영역 중 가장 낮은 영역은 '사회적응'이었다. '사회적응'은 학생들이 대학의 사회적 삶에 적응하는 정도, 안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친구나 부모와의 사회적 관계, 교수, 교우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포함하는데[38], 이는 간호학과 신입생의 사회적 관계에 대한 지지가 부족하며, 교과과정의 과중한 부담으로 타과

학생들보다 동아리활동이나 사회봉사활동 등의 교과 외 활동이 매우 부족함으로 인한 결과로 사료된다.

동아리 활동을 통해 선후배 및 타 학과 학생들과의 대인관계를 넓힐 수 있고, 교과학습으로 인한 심리적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다[17]. 또한 교과학습을 통해 성취하기 힘든 부분을 이룰 수 있고 이는 대학생활적응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39], 신입생의 동아리 활동이나, 사회봉사활동을 위한 학교의 지원과 배려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진로정체감과 전공만족도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전공만족도가 높은 학생의 진로정체감이 높게 나타난 Kim(2012)[21], Kwon과 Choi(2010)[28]의 연구와 전공만족도는 장래 진로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직업선택에 대한 자기 확신이 뚜렷할수록 진로정체감이 높게 나타남을 보고한 Cho와 Lee(2006)[12]의 연구결과가 이를 강력하게 지지한다. 또한 진로정체감과 대학생활적응, 전공만족도와 대학생활적응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전공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고 진로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에 긍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학생을 지도하는 교수는 학생들에게 진로지도와 직업의식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는 좋은 역할을 수행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성공적인 대학생활적응을 위한 진로지도 프로그램이 신입생부터 제공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34].

또한 본 연구결과와 진로정체감과 전공만족도는 신입생의 대학생활적응에 영향력 있는 유의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Yang 등(2012)[1], Jung과 Chung(2012)[17]의 연구에서 전공만족도가 대학생활적응에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나타난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며, 진로정체감과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대학생활에 잘 적응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에 지도교수들은 효율적인 학습법 개발, 학생들과의 전공지식과 학습 방법에 대한 정보 공유, 선배와의 만남을 통해 학생들의 전공에 대한 인식을 높여줄 필요가 있다[17]. 또한 신입생 때부터 학과 차원의 진로교육이 필요하며, 진로 교육 시에 교수들은 과거의 단편적인 진로상담에서 벗어나 간호사들이 진출할 수 있는 직업의 다양함과 사회적인 직업 변화를 파악하여, 학생들이 다양한 직종으로 진출을 시도할 수 있도록 하는 심도 깊은 진로교육과 상담이 필요하다[34]. 이는 간호학과 신입생의 진로정체감을 확립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며, 더 나아가 대학생활에 보다 더 잘 적응하고 졸업 후 취업분야와 진로설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의의는 간호학과 신입생의 진로정체감, 전공만족도 및 대학생활적응의 상관관계를 밝힘으로서, 진로정체감과 전공만족도가 신입생의 대학생활적응 향상에 긍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는데 있다. 간호학과 신입생의 진로정체감과 전공만족을 높여주기 위해, 입학 전 학교생활체험 프로그램[1], 선후배, 교수와의 관계 강화를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32] 등을 통한 학교차원의 프로그램 개발 및 수행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신입생의 성공적인 대학생활적응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간호학과 신입생의 대학생활적응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를 증진시킬 수 있는 대학생활적응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학과 신입생의 진로정체감, 전공만족도 및 대학생활적응의 관계를 알아봄으로서, 간호학과 신입생의 대학생활적응을 높이기 위한 중재마련의 기초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대상자의 진로정체감, 전공만족도 및 대학생활적응은 모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로 나타났으며, 진로정체감과 전공만족도가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간호학과 신입생의 대학 생활적응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를 증진시키기 위한 대안 마련에 기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전국적 단위의 대규모 간호학과신입생의 진로정체감, 전공만족도 및 대학생활적응을 조사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다양한 전공을 포함시켜 전공별 신입생의 전공만족도와 진로정체감을 비교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간호학과 신입생의 진로정체감과 전공만족도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를 분석한 연구가 필요하다.

## Reference

- [1] K. Y. Yang, J. R. Lee, B. N. Park, "Factors affecting adaptation to school life of freshmen enrolled in nursing at junior colleg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8, No. 1, pp.5-13, 2012.  
DOI: <http://dx.doi.org/10.5977/jkasne.2012.18.1.005>
- [2] J. A. Park, E. K. Lee, "Influence of ego resilience and stress coping styles on college adaptation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 17, No. 3, pp.267-276, 2011.  
DOI: <http://dx.doi.org/10.11111/jkana.2011.17.3.267>
- [3] K. M. Jang, "Effects and process analysis of the career group counselling program for college stud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Won Kwang University, Iksan, 2002.
- [4] H. S. Ha, "A study of department satisfaction and school satisfaction of undergraduate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University, Seoul, 2000.
- [5] M. J. Ka, S. M. Kim, Y. K. Kim, et al, "Nursing students' image of nurse and satisfaction with their major", *The Journal of Ewha nursing Academy*, Vol. 44, No. 3, pp.1-15, 2010.
- [6] H. S. Park, Y. J. Bae, S. Y. Jung, "A study on self-esteem, self-efficacy, coping methods, and the academic and job-seeking stress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Vol. 11, No. 4, pp.621-631, 2002.
- [7] S. Y. Min, "Adjustment experience of students in nursing educatio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Vol. 15, No. 4, pp.409-419, 2006.
- [8] H. J. Choi, E. J. Lee, "Mediation effects of self-efficacy between academic stress and college adjustment in first year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Fundamentals of Nursing*, Vol. 19, No. 2, pp.261-268, 2012.  
DOI: <http://dx.doi.org/10.7739/jkafn.2012.19.2.261>
- [9] Barron. D, West. E, Reeves. R, "Tied to the job: Affective and relational components of nurse retention", *Journal of Health Service Research Policy*, Vol. 12, pp.46-51, 2007.  
DOI: <http://dx.doi.org/10.1258/135581907780318419>
- [10] M. H. Jung, M. A. Shi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satisfaction in major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2, No. 2, pp.170-177, 2006.
- [11] E. H. Choi,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identity and clinical competenc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5, No. 1, pp.15-21, 2009.  
DOI: <http://dx.doi.org/10.5977/JKASNE.2009.15.1.015>
- [12] H. Cho, K. Y. Lee, "Self esteem and career identit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ublic Health Nursing*, Vol. 20, No. 2, pp.163-173, 2006.
- [13] M. A. Kim, J. Y. Lim, S. Y. Kim, et al, "Influencing factors on nursing students' career attitude maturity",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Vol. 13, No. 4, pp.383-391, 2004.
- [14] H. S. Kim, " The effects of college students' career education program as curriculum on vocational identity, career decision levels & career preparation behavior",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Vol. 20, No. 2, pp.35-46, 2007.
- [15] Holland. J. L, Diger. D. C, Power. P. G, "*My vocational situation*", Palo Alto, CA: Counselling Psychology Press, 1980.
- [16] K. Y. Kim, Y. H. Cho, "Meditation and moderation effects of self-efficacy between career stress and college adjustment among freshmen",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 18, No. 4, pp.197-218, 2011.
- [17] H. J. Chung, H. I. Chung, "Effects of self-esteem, emotional intelligence and social support on college adjustment in first year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Vol. 21, No. 3, pp.188-196, 2012.  
DOI: <http://dx.doi.org/10.12934/jkpmhn.2012.21.3.188>
- [18] S. J. Han, "The influence of academic self-efficacy and major satisfaction on career attitude maturit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Adult Nursing*, Vol. 25, No. 5, pp.559-566, 2013.  
DOI: <http://dx.doi.org/10.7475/kjan.2013.25.5.559>
- [19] H. J. Park, I. S. Jang, "Stress, depression, coping styles and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6, No. 1, pp.14-23, 2010.  
DOI: <http://dx.doi.org/10.5977/JKASNE.2010.16.1.014>
- [20] Faul. F, Erdfelder. E, Lang. A. G, Buchner. A, "G\* Power 3: a flexible statistical power analysis program for the social, behavioral, and biomedical sciences", *Behavior Research Methods*, Vol 39, No. 2, pp.175-191, 2007.  
DOI: <http://dx.doi.org/10.3758/BF03193146>
- [21] N. K. Kim, "Patterns of career choice and career identity of students in nursing", Unpublished Master's thesis, A-ju University, Seoul, 2012.



- [22] B. H. Kim, "Career decision level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the college stud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University, Seoul, 1997.
- [23] Y. H. Kwon, "Effect of ready planned self-growth program through MBTI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career identity of nursing college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ei-myung University, Daegu, 2002.
- [24] D. J. Lee, "The relationships among satisfaction in major, gender identity, and gender stereotype of male nursing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2004.
- [25] Baker. R. W, Siryk. B, "Measuring adjustment to college", *Journal of Counselling Psychology*, Vol. 31, No. 1, pp.179-189, 1984.  
DOI: <http://dx.doi.org/10.1037/0022-0167.31.2.179>
- [26] J. W. Hyun, "The effect of perfectionism and evaluative threat on the performance of task",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1992.
- [27] H. W. Kim,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system patterns and career decision-making and adjustment to college",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2005.
- [28] K. N. Kwon, E. H. Choi, "Factors affecting career identit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ublic Health Nursing*, Vol. 24, No. 1, pp.19-28, 2010.
- [29] S. K. Lee, " Korean college students vocation identity: The differences according to demographic and career-related variables",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Vol. 19, No. 1, pp. 141-154, 2006.
- [30] K. H. Lee, J. M. Kwon, "Autonomy of major selection of college students and college life", *The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Vol. 12, pp. 95-112, 1996.
- [31] Leehu. Z, Devon. M. B, "Gender and students' vocational choice in entering the field of nursing", *Journal of Nursing Outlook*, Vol. 53, No. 4, pp.193-198, 2005.  
DOI: <http://dx.doi.org/10.1016/j.outlook.2005.05.001>
- [32] M. S. Kim, " Moderating effects of self esteem and self efficac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rofessional self concept and satisfaction in their major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7, No. 2, pp.159-167, 2011.  
DOI: <http://dx.doi.org/10.5977/JKASNE.2011.17.2.159>
- [33] S. R. Lee, "Nurse image, satisfaction of major effect on nursing professionalism of male students in nursing", Unpublished Master's thesis, A-juUniversity, Seoul, 2011.
- [34] I. O. Moon, K. W. Lee, "The effect of satisfaction in major and career search efficacy on career search behavior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6, No. 1, pp.83-91, 2010.  
DOI: <http://dx.doi.org/10.5977/JKASNE.2010.16.1.083>
- [35] H. S. Kim, "A study on participation in dance and adaptation to university life", *The Korean Journal of Dance*, Vol. 36, pp.5-19, 2003.
- [36] B. N. Park, J. S. Park, J. R. Lee, "Factors affecting adaptation to school life among nursing junior college freshme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Health Information and Health Statistics*, Vol. 34, No. 2, pp.153-164, 2009.
- [37] W. J. Park, "The influence of ego-resilience on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s, learning styles, and academic adjustment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Vol. 18, No. 3, pp. 240-250, 2009.
- [38] H. Y. Sim, "The relationships between Stressors of Students in Different Major Fields and Adaptations to College Life" Unpublished Master's thesis, Dan-kook University, Seoul, 2013.
- [39] W. B. Yang, "The relationships degree of participation in sports club and college life adaptation of prospective teacher at elementary", *Journal of Sport and Leisure Studies*, Vol. 33, No. 2, pp.1145-1155, 2008.

## 조 인 영(In Young Cho)

[정회원]



- 2013년 2월 :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 석사
- 2013년 3월 ~ 현재 :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 박사과정 중
- 2013년 3월 ~ 현재 : 동강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아동간호, 보건교육